

#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 -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를 예로 들어

송재목  
오사카경제법과대학

##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 티벳어에 나타나는 증거성(evidentiality)을 표현하는 문법범주와 주어제약 사이의 관계를 유형론적으로 관찰해 보고자 한다. 증거성(evidentiality)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원천(information-source)을 나타내는 문법표지이다. 증거성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언어에 따라 상이하다. 적게는 두 개에서 많게는 6개 이상까지 구별하는 언어들이 보고되고 있다. 증거성의 문법표지를 정보의 질적인 차이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대개 직접지식(direct knowledge), 간접지식(indirect knowledge), 보고(reported, hearsay)로 나눌 수 있다. 증거성의 표지는 증거성의 의미를 주요의미로 표현하는 독자의 형태소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다른 범주의 표지에 겹쳐서 나타날 수도 있다.<sup>1</sup>

증거성의 문법표지들은 종종 주어제약을 동반한다. 이는 특정명제의 행위자에게 전제되는 정보의 질과 증거성 표지로 나타나는 정보의 질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에서 나타나는 주어제약들을 증거성과 관련시켜 설명한 후 증거성과 주어제약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어

한국어의 증거성표지로는 다음의 4가지 형태소를 들어 살펴보겠다.

### (1)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

- 가. 직접지식: -*터*-, -*네*
- 나. 간접지식: -*졌*-
- 다. 보고: -*대*

### 2.1. '-*터*-'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 중에서 직접지식을 나타내는 표지로는 '-*터*-'와 '-*네*-'를 들 수 있다. '-*터*-'는 '과거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낸다. 이는 명제가 표시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정보를 화자가 과거에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획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예문 2-4).<sup>2</sup> '-*터*-'는 2인칭 또는 3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될 수 있지만,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agent)로서의 화자의 행위를 기술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예문 5-6).

- (2) 강아지가 밥을 먹더라.
- (3) 강아지가 밥을 먹었더라.
- (4) 강아지가 집을 잘 지키겠더라.

<sup>1</sup> 증거성에 관해서는 Aikhenvald & Dixon (2003), Chafe & Nichols (1986) 참조.

<sup>2</sup> 한국어 '-*터*-'의 양태적 특성에 대해서는 송재목(1998) 참조.

- (5) \*내가/네가/그가 밥을 먹고 있더라.
- (6) \*내가/네가/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더-’가 ‘과거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낸다고 해서 과거의 상황기술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더-’는 미래상황의 기술에도 사용된다(예문 4). 미래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화자가 그 상황 자체를 직접관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래상황의 기술에 ‘-더-’가 쓰일 경우 ‘-더-’가 나타내는 것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증거를 과거에 감각적으로 관찰하였다는 것이다.

‘-더-’는 일반적으로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지만, 화자가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가 아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제3자인 양 객관화해서 말 할 경우에는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예문 7-9).

- (7)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더라.
- (8) 주위를 둘러보니 나 혼자 소주를 마시더라.
- (9) 어젯밤 꿈속에서 내가 공원을 혼자 돌아다니더라.

예문 (7-8)에서 화자는 자각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를 나중에 인식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문 (7)에서 화자는 자신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이후에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예문 (8)에서 화자는 자신이 소주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서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위를 살펴보고 갑자기 깨닫게 된 경우이다. 예문 (9)는 화자가 꿈속에서의 자신의 행위를 마치 제3자의 행위처럼 객관화한 경우이다.<sup>3</sup>

## 2.2. ‘-네’

‘-더-’가 ‘과거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내는 데 반해 ‘-네’는 ‘현재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낸다. ‘-네’는 명제가 표시하는 행위/상태에 대한 정보를 화자가 현재 직접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sup>4</sup> ‘-더-’와 마찬가지로 ‘-네’는 2인칭 또는 3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될 수 있지만, 1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예문 10-14).

- (10) 강아지가 밥을 참 잘 먹네.
- (11) 강아지가 밥을 깨끗이 먹었네.
- (12) 강아지가 집을 잘 지키겠네.
- (13) \*내가/네가/그가 이제 학교에 다니네.
- (14) \*내가/네가/그가 노래를 부르네.

‘-네’가 ‘현재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낸다고 해서 ‘-네’가 반드시 현재사실의

<sup>3</sup> ‘-더-’는 이 외에도 ‘심리형용사’들과는 1인칭주어만 허용한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송재목 91998) 참조.

<sup>4</sup> 이 글에서 다루는 현재의 감각적 관찰을 나타내는 ‘-네’와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하계체어미 ‘-네’는 별개의 형태소로 본다.

- (ㄱ) 나 오늘 학교에 가네.
- (ㄴ) 이젠 쉬어야겠네.

기술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ㄴ’은 예문 (11)에서는 과거의 사건, 예문 (12)에서는 미래의 사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예문 (11-12)에서 ‘-ㄴ’이 나타내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상황 자체를 직접 관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문 (11)에서 ‘-ㄴ’이 나타내는 것은 [강아지가 밥을 깨끗이 먹다]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남긴 결과상태를 현재 직접 관찰하였다는 것이다.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빈 강아지 밥그릇을 보았을 때와 같은 경우이다. 예문 (12)에서 화자는 [강아지가 집을 잘 지키다]라는 미래의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 이 미래의 상황이 화자에게는 추정/추측이라는 간접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겠-’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명확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 ‘-ㄴ’을 통해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강아지가 집을 잘 지키겠다]라는 추정/추측에 이르게 되는 증거를 현재 직접관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보고 잘 짖는다거나 튼튼하게 생겼다거나 하는 현재 화자가 직접 관찰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미래의 사건/상황에 대한 추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ㄴ’은 일반적으로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지만, 화자가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가 아닐 경우 또는 객관화할 경우에는 ‘-ㄴ’도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15) 내가 회를 다 먹네.

(16) 내가 대학생 때 머리를 이렇게 길렀었네.

예문 (15)는 화자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회’를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경우에 적합한 발화이다. 예문 (16)은 화자가 대학생시절의 자신의 사진을 보고 있고 있던 자신의 행위/모습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경우이다. 즉 [머리를 기르다]라는 과거의 행위는 화자의 인식세계 속에 없었으며 사진을 보고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문 (13-14)에서 1인칭화자주어는 비문으로 처리하였지만 사실 예문 (15-16)과 같이 문맥에서 자신의 행위가 화자의 인식세계 속에 있지 않을 때나 객관화될 경우에는 가능한 문장이 된다.

### 2.3. ‘-겠-’

‘-ㄴ’, ‘-ㄹ’이 화자의 직접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데 반해, ‘-겠-’은 간접적인 지식(추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명제에 들어 있는 행위/상태에 대한 정보를 화자가 직접적인 경험/관찰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얻었다는 것이다. 직접지식의 ‘-ㄴ’, ‘-ㄹ’과 마찬가지로 간접지식의 ‘-겠-’도 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기술에 두루 사용될 수 있다(예문 17-19).

(17) 그는/너(는) 지금 아침(을) 먹고 있겠다.

(18) 그는/너(는) 다음주부터 학교에 가겠다.

(19) 그는/너(는) 어제 무척 바빴겠다.

‘-겠-’은 간접지식(추정)의 양태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주로 2인칭주어, 3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며 1인칭주어와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겠-’이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로서의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간접지식(추정)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화자의 ‘의지/의도’를 나타낸다(예문 20-21). 이는 1인칭주어와 간접지식의 양태표지의 결합이 한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5</sup>

(20) 나는 오늘 밤 이 책을 다 읽겠다.

(21) 내가 꼭 1등을 하겠다.

#### 2.4. ‘-대’

한국어의 보고표지 ‘-대’는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로서의 1인칭 또는 2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예문 22-25).

(22) 내일 비가 온대.

(23) 그 사람이 죽었대.

(24) 그가/\*네가/\*내가 왔대.

(25) 그가/\*네가/\*내가 몽골어를 공부한대.

주어가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가 아닐 경우 보고표지 ‘-대’는 1인칭/2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된다.

(26) 그가/네가/내가 책을 두고 갔대.

(27) 그가/네가/내가 어제 무척 취했었대.

1인칭주어를 취할 경우 예문 (26-27)은 화자의 행위/상황이 적어도 화자의 인식 세계 속에 있지 않을 경우에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예문 (26)에서 [내가 책을 두고 가다]나 (27)에서 [내가 어제 무척 취하다]는 화자가 제3자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전해듣기 전까지는 화자의 인식세계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증거성표지와 주어제약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증거성표지에 있어서는 직접지식의 ‘-더-, -네’뿐만 아니라 간접지식의 ‘-졌-’, 보고의 ‘-대’ 모두 1인칭주어와는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두 예외가 있다. 화자가 자각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상황, 또는 화자가 제3자처럼 객관화되어 있는 사건/상황에서는 이들 모두 1인칭주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

<sup>5</sup> 예문 (18-19)도 ‘화자의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의미로는 1인칭주어를 취할 수 있다.

(ㄱ) 나는 지금 아침을 먹고 있겠다.

(ㄴ) 나는 다음주부터 학교에 가겠다.

또한 주어가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가 아닐 경우에 ‘-졌-’은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ㄷ) 잘못하면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나겠다.

(ㄹ) 2년이 지나면 나도 선생이 되어 있겠다.

위의 예문(ㄷ, ㄹ)에서 화자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상황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졌-’은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3. 몽골어

몽골어의 증거성표지는 과거표지와 보고표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sup>6</sup>

(28) 몽골어의 증거성표지

- 과거: 직접지식: *-laa*
- 간접지식: *-jee*
- 중립: *-v*
- 보고: *gene*

#### 3.1. *-laa/-jee/-v*

몽골어의 과거표지는 증거성에 따라 직접지식의 *-laa*, 간접지식의 *-jee*, 증거성의 양태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v*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laa*는 화자가 직접 목격했거나 경험한 행위/상태의 기술에 사용되고, *-jee*는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거표지 *-v*는 이러한 증거성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30-35)에서 보듯이 몽골어에서 증거성에 관해 중립적인 과거표지 *-v*는 주어제약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의 직접지식의 표지 ‘-터-, -네’와는 달리 몽골어에서 직접지식의 *-laa* 또한 인칭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예문 30-35). 그러나 간접지식의 *-jee*는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로서의 1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못한다(예문 29, 32). *-jee*는 또한 2인칭 주어와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예문 30, 33).

(29) *Bi ödör-iin xool id-ev/-lee/\*jee.*<sup>7</sup>

I(Nom) day-Gen meal eat-Past/DKPast/IKPast  
‘나는 점심을 먹었다.’

(30) *Či ödör-iin xool id-ej baĭ-v/-laa/-<sup>2</sup>jee.*

you(Nom) day-Gen meal eat-Conn be-Past/DKPast/IKPast  
‘너는 점심을 먹고 있었다.’

(31) *Ter ödör-iin xool id-ev/-lee/-jee.*

he(Nom) day-Gen meal eat-Past/DKPast/IKPast  
‘그는 점심을 먹었다.’

(32) *Bi ongocon-d suu-v/-laa/\*jee.*

I(Nom) airplane-Dat sit-Past/DKPast/IKPast  
‘나는 비행기를 탔다.’

(33) *Či ongocon-d suu-j baĭ-v/-laa/-<sup>2</sup>jee.*

you(Nom) airplane-Dat sit-Conn be-Past/DKPast/IKPast  
‘너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34) *Ter ongocon-d suu-v/-laa/-jee.*

he(Nom) airplane-Dat sit-Past/DKPast/IKPast

<sup>6</sup> 몽골어에는 이 외에도 증거성을 나타내는 *šuu, biz* 등과 같은 여러 문장첨사(sentence particle)들이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sup>7</sup> 몽골어 과거시제표지들 중 *-laa*는 동사어간과의 모음조화에 따라 *-laa/-lee/-loo/-löö*의 이형태, *-v*는 삽입모음과 모음조화에 따라 *-(a)v/(e)v/(o)v/(ö)v*의 이형태를 갖는다.

‘그는 비행기를 탔다.’

한국어의 증거성표지들에 대한 주어제약의 예외와 마찬가지로 몽골어의 간접지식표지 *-jee*도 한국어와 유사한 주어제약의 예외를 보여 준다. 즉, 화자가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가 아닐 경우, 특히 관련된 사건/상황이 화자의 의식세계의 일부분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칭화자도 간접지식의 *-jee*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예문 35-37).

(35) *Bi öčigdor ix sogt-ov/-<sup>2</sup>loo/-jee.*  
I(Nom) yesterday very get:drunk-Past/-DKPast/-IKPast  
‘나는 어제 아주 취했다.’

(36) *Bi surguul' deer malgaĩ-gaa mart-av/-<sup>2</sup>laa/-jee.*  
I(Nom) school at hat-Refl forget-Past/-DKPast/-IKPast  
‘나는 학교에서 모자를 잃어 버렸다.’

(37) *Bi öčigdor niileg deer uxaan ald-av/-<sup>2</sup>laa/-jee.*  
I(Nom) yesterday party at mind lose-Past/DKPast/IKPast  
‘나는 어제 파티에서 정신을 잃었다.’

### 3.2. *gene*

몽골어에는 동사 *ge-* ‘말하다’에서 나온 보고표지 *gene* (*ge-ne*, tell-NPast)이 있다. 몽골어 보고표지 *gene*은 한국어의 보고표지 ‘-대’와 마찬가지로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로서의 1인칭 또는 2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예문 40-42).

(38) *Margaas̄ širüün boroo or-no gene.*  
tomorrow severe rain come-NPast Rep  
‘내일 폭우가 온대.’

(39) *Xödöö mal ix töll-öj baĩ-na gene.*  
country livestock a:lot produce young-Conn be-NPast Rep  
‘시골의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있다.’

(40) *\*Bi/Či/Ter mongol xel sur-na gene.*  
I/you/he(Nom) Mongol language learn-NPast Rep  
‘내가/네가/그가 몽골어를 공부한대.’

(41) *\*Bi/Či/Ter xool id-sen gene.*  
I/you/he(Nom) meal eat-Pfv Rep  
‘내가/네가/그가 밥을 먹었다.’

(42) *\*Bi/Či/Ter ir-ex jil Yapon yav-na gene.*  
I/you/he(Nom) come-Irs year Japan go-NPast Rep  
‘내가/네가/그가 내년엔 일본에 간대.’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가 아닌 경우 몽골어 보고표지 *gene*은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예문 43-44).

(43) *Bi öčigdor ix sogt-son gene.*  
I(Nom) yesterday very get:drunk-Pfv Rep

‘내가 어제 아주 취했었다.’

(44) *Bi surguul' deer malgaŋ-gaa mart-san gene.*

I(Nom) school at hat-Refl forget-Pfv Rep

‘내가 학교에서 모자를 잃어버렸다.’

몽골어의 증거성표지와 주어제약관계는 한국어와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몽골어의 간접지식의 과거표지 *-jee*와 보고표지 *gene*는 한국어의 간접지식 ‘-졌-’, 보고표지 ‘-네’와 유사하다.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지만, 화자가 자각의식이 없는 행위자이거나 객관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1인칭주어를 허용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간접지식표지 ‘-졌-’이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로서의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 증거성이 아니라 ‘화자의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데 반해, 몽골어 간접지식표지 *-jee*는 이러한 의미전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직접지식의 표지에 있어서는 한국어의 ‘-터-, -네’가 간접지식, 보고의 표지와 유사하게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주어제약을 보이는데 반해, 몽골어 직접지식의 과거표지 *-laa*는 이러한 주어제약을 나타내지 않는다.

한국어의 증거성표지들과 몽골어 증거성표지들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한국어의 증거성표지들이 증거성을 중심의미로 가지고 시제적인 제한 없이 사용되는 데 반해, 몽골어의 직접지식표지 *-laa*와 간접지식의 표지 *-jee*는 기본적으로 시제표지라는 것이다. 즉 몽골어의 *-laa*와 *-jee*는 기본적으로 과거시제표지이지만 화자가 어떤 종류의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한편 한국어의 직접지식의 표지 ‘-터-, -네’와 간접지식의 표지 ‘-졌-’는 시제표지가 아니라 증거성의 표지들이다. 즉 증거성을 중심의미로 가지면서 원칙적으로 시제의 제한없이 사용된다. 다만 증거성의 내용에 따라 문맥정보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화용론적 측면에서 특정시제와 가까운 해석을 받게 된다.

#### 4. 티벳어

티벳어의 증거성표지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다.<sup>8</sup>

(45) 티벳어의 증거성표지

가. 직접지식: *-tʰæ*

나. 간접지식: *-zəg*

다. 보고: *se*

##### 4.1. *-tʰæ*, *-zəg*

티벳어에서 직접지식을 나타내는 표지 *-tʰæ*는 화자가 직접 감각적으로 지각한 행위를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간접지식의 *-zəg*는 주변적인 증거나 추론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티벳어에서 직접지식의 *-tʰæ*와 간접지식 *-zəg*는 주어제약과 이에 대한 예외에 있어서 한국어와 유사하다.

티벳어의 직접지식표지 *-tʰæ*는 한국어의 직접지식표지 ‘-터-, -네’와 마찬가지로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예문 46-48). 티벳어의 간접지식표지 *-zəg*도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예문 46-48).

(46) *ɲæ xabda sʰoŋ-nə/\*tʰæ/\*zəg.*

I(Abs) deer-chase(Dat) go(Comp)-Decl/-DK/-IK

<sup>8</sup> 이 글의 티벳어자료는 Sun (1993)에 소개된 Amdo Tibetan 방언자료이다.

‘나는 사슴사냥을 갔다.’

(47) *tʰɛkæ xabda sʰoŋ-nə-tʰæ/-zəg.*

you:and:your:family(Abs) deer-chase(Dat) go(Comp)-Decl/-DK/-IK

‘너희네는 사슴사냥을 갔다.’

(48) *dordze xabda sʰoŋ-nə-tʰæ/-zəg.*

Rdo-rje(Abs) deer-chase(Dat) go(Comp)-Decl/-DK/-IK

‘도르제는 사슴사냥을 갔다.’

한국어의 직접지식 ‘-ㄷ-’와 마찬가지로 티벳어의 직접지식 *-tʰæ*도 다음과 같이 1인칭주어를 허용하는 상황들이 있다(예문 49-51). 이들은 대개 화자가 자각의식이 있는 행위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로 보인다.

(49) *ŋə tɕʰo ʰŋədlæm-ɛ ʰŋi-nə-tʰæ/-zəg.*

I(Erg) you(Sg.Abs) dream-Dat dream-Decl/-DK/-IK

‘나는 네 꿈을 꾸었다.’

(50) *ŋə ʰŋəd tʂo-nə ʰlakʰæ zəg ji-tʰæ.*

I(Dat) sleep desire-Conn yawn Indef do(Comp)-DK

‘나는 졸려서 하품을 했다.’

(51) *ŋə hagɕʰi tʂəma ci-nə-tʰæ/-zəg.*

I(Erg) pork(Gen) smell perceive-Decl/-DK/-IK

‘나는 돼지고기 냄새를 맡았다.’

#### 4.2. *se*

티벳어에도 동사 *zer* ‘말하다’에서 나온 보고표지 *se*가 있다. 보고표지 *se* 또한 한국어, 몽골어의 보고표지와 마찬가지로 3인칭 주어와는 자연스럽게 허용되지만 1인칭이나 2인칭 주어와는 함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 예문(52-53)와 같이 3인칭주어와 함께 쓰인 예들은 있으나, 1인칭주어나 2인칭주어와 함께 쓰인 예들은 보이지 않는다.

(52) *tʂaɕʰi ju-ɛ joŋ-nə se.*

Bkra-shis(Abs) home-Dat come-Con Rep

‘Bkra-shis가 집으로 왔다.’

(53) *adæ təb-wə-tʰæ se.*

uncle faint-away-DE Rep

‘삼촌이 기절하셨대.’

티벳어의 증거성표지들의 성격은 몽골어보다도 한국어의 증거성표지들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이들은 한국어의 증거성표지와 같이 중심의미가 시제가 아니라 증거성이다. 우리는 3절에서 몽골어의 표지들은 과거시제를 중심의미로 취하고 과거시제 안에서의 증거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티벳어의 증거성표지들에 대한 주어제약현상도 몽골어보다는 한국어와 유사하다. 몽골어의 직접지식의 과거표지 *-laa*가 아무런 주어제약 없이 사용되는데 반해, 한국어의 직접지식 ‘-ㄷ-, -ㄴ-’와 마찬가지로 티벳어의 직접지식 *-tʰæ*는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간접지식의 표지에 있어서는 세 언어가 모두 1인칭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어제약현상을 보인다. 보고의 표지에 관해서도 세



언어는 1인칭이나 2인칭주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5. 주어제약의 유형론

### 5.1. 증거성표지와 주어제약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한 정보의 원천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에 대한 표현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화자가 특정명제에 대해 나타내는 정보원천(증거성)에는 문법표지에 의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뿐만 아니라 명제내적인 정보, 문맥적 정보 등이 있다. 우리들은 자신이 목격한 행위를 어떤 이유로 인해 마치 제3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직접지식에 의해 인지한 사실/상황을 간접지식 또는 보고에 의한 것인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발화는 거짓말이 될지언정 비문법적인 발화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명제에 대해 표현된 명시적 또는 함의적인 정보원천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이는 비문이 된다.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명제에 대한 정보원천을 밝히면서 그것이 화자의 직접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간접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간접지식의 증거성표지는 화자가 직접 관찰/경험하지 못한 행위/상태의 기술에 사용되는 문법표지이다. 간접지식은 일반적으로 행위자로서의 1인칭주어를 취할 수 없다. 화자 자신의 행위는 화자의 인식영역 안에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1인칭주어의 문장은 명제내재적으로 화자가 그 사건/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1인칭주어의 문장은 이를 부정하는 간접지식의 증거성표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몽골어 간접지식의 표지 *-jee*와 티벳어 간접지식의 표지 *-zog*는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간접지식(추정)의 선어말어미 ‘-겠-’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1인칭화자를 주어로 취할 경우 추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화자의 의지/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간접지식의 증거성표지가 1인칭주어를 용납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화자의 행위가 화자의 인식 속에 있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화자에게 인지된다’는 전제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화자가 자각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나 화자가 스스로를 제3자와 같이 객관화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고의 증거성표지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의 정보를 제3자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1인칭이나 2인칭주어와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간접지식의 표지가 1인칭주어와 어울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표지도 1인칭 주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지 못하고 제3자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하는 것은 ‘화자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인식영역 안에 있고 따라서 직접지식의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화용론적 전제와 모순된다. 보고의 증거성표지는 또한 2인칭주어와도 잘 사용되지 않는다. 청자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청자의 인식세계 속에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청자가 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화용론적 전제이다. 청자의 행위에 대해 화자가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청자에게 전하는 것은 청자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화용론적 경우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지 않는다. 한국어 보고표지 ‘-다’, 몽골어 보고표지 *gene*, 티벳어 보고표지 *se*는 모두 화자가 전달하는 명제가 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임을 나타낸다. 이들 보고표지는 모두 기본적으로 1인칭이나 2인칭주어를 행위자로 하는 문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보고표지의 경우에도 간접지식의 표지와 마찬가지로 주어제약에 대한 예외를 보인다. 1인칭주어 또는

2인칭주어에 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화용론적 전제가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간접지식이나 보고의 표지에 대한 주어제약현상은 언어일반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간접지식의 증거성표지는 한국어나 몽골어, 티벳어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에서도 1인칭주어와는 일반적으로 같이 쓰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주어제약에 대한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위의 언어들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화자가 그 행위에 대한 자각이 없거나 화자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하는 경우에 한해서일 것이다. 보고의 증거성표지도 언어일반적으로 1인칭이나 2인칭주어와 함께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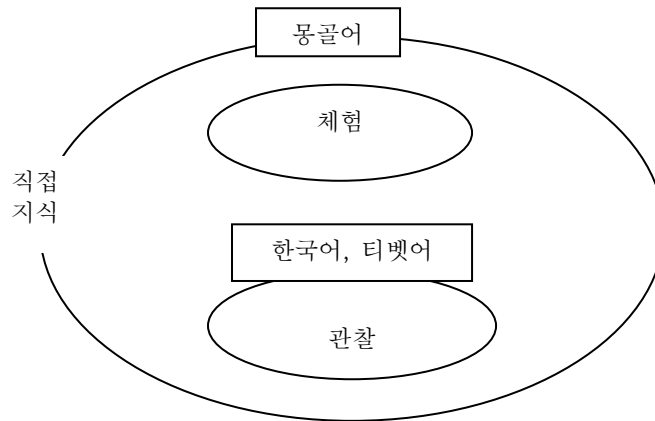
직접지식은 명제내용에 대한 정보를 화자가 직접적인 체험 또는 관찰을 통해 획득했다는 것으로 주어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골어 *-laa*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한국어 ‘-ㄷ-’와 ‘-ㄴ-’, 티벳어 *-lʰæ*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표지들은 모두 직접지식의 표지이지만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직접지식의 표지들에 보이는 이러한 주어제약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라고 해서 여러 언어들에서 발견되는 것이 모두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지식의 표지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정보획득의 방법 또는 대상이 되는 정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언어에 따라 직접지식의 정보영역을 보다 세분하게 나누어 문법화하고 있는 언어도 있다. Tuyuca어의 경우 직접지식의 영역에 속하는 두 가지 증거성표지가 존재한다(Barnes 1984). Tuyuca어는 화자가 정보를 어떤 감각기관에 의해 획득하느냐에 따라 ‘시각적 정보(visual)’와 ‘시각외적 정보(nonvisual)’로 나누어 표현한다. ‘시각적 정보’는 화자가 눈으로 직접 보았거나 보고 있는 상황의 기술에 사용되며, ‘시각외적 정보’는 화자가 청각, 후각, 촉각 등에 의해 관찰한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2절에서 살펴본 한국어에서도 ‘-ㄷ-’와 ‘-ㄴ-’는 모두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로 여겨지지만 이들은 정보획득의 시점에 따라 ‘과거의 감각적 관찰’과 ‘현재의 감각적 관찰’로 나누어진다.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우리는 몽골어 *-laa*와 한국어 ‘-ㄷ-, -ㄴ-’, 티벳어 *-lʰæ*는 직접지식의 표지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문법표지로 본다.

몽골어의 과거표지 *-laa*는 명제에 대한 증거를 화자가 사건/상황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 관찰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행위의 중심인물로서의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변인물로서의 화자의 직접적인 관찰’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laa*는 화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술과 제3자의 행위/상황에 대한 관찰의 기술 등 주어제약을 받지 않고 두루 사용된다. 한국어의 직접지식 ‘-ㄷ-, -ㄴ-’와 티벳어의 직접지식 *-lʰæ*는 몽골어 *-laa*에 비해 표현하는 정보원천의 영역이 작다. 한국어와 티벳어의 직접지식표지들이 나타내는 것은 중심인물로서의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제외한 것으로 주변인물로서 화자가 직접 관찰한 사건/상황만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이 경우 화자 자신의 행위나 상황은 특별히 그것을 관찰의 대상으로 만들 문맥적인 필요성이 주어지지 않는 한 관찰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1인칭주어는 한국어나 티벳어의 직접지식표지들과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몽골어, 한국어, 티벳어의 직접지식의 정보영역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54)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 직접지식의 정보영역<sup>9</sup>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의 증거성과 주어제약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5) 한국어와 몽골어, 티벳어의 증거성표지와 주어제약

|      |              | 1인칭주어      | 2인칭주어        | 3인칭주어      |
|------|--------------|------------|--------------|------------|
| 직접지식 | 경험/관찰<br>(몽) | O(몽)       | O(몽)         | O(몽)       |
|      | 관찰<br>(한, 티) | X(한, 티)    | O(한, 티)      | O(한, 티)    |
| 간접지식 |              | X(한, 몽, 티) | O(한, 티) X(몽) | O(한, 몽, 티) |
| 보고   |              | X(한, 몽, 티) | X(한, 몽, 티)   | O(한, 몽, 티) |

(몽: 몽골어, 한: 한국어, 티: 티벳어, O: 허용, X: 불허)

5.2. 한국어 ‘-더-’와 몽골어 *-jee*

주어제약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한국어 ‘-더-’와 몽골어 *-jee*의 경우이다. 이 둘은 외견상 아주 유사한 문법행위를 보여준다. 첫째, 이 둘은 과거사실의 기술에 사용된다. 몽골어 *-jee*는 과거시제표지로 현재나 미래사실의 기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어 ‘-더-’는 현재나 미래사실의 기술에도 사용되지만 주로 과거사실의 기술에 사용되며 무표적인 경우 과거사실의 기술로 해석된다. 둘째 유사한 주어제약을 보여 준다. 이들은 1인칭주어와는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주어제약 뿐만 아니라 예외들에 대해서도 아주 유사하다. 두 문법표지는 1인칭주어와는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지만 1인칭주어가 객관화되었거나 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1인칭주어를 허용한다. 따라서 피상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면 이들이 유사한 주어제약을 보여주는 과거시제표시로 유사한 증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론내릴

<sup>9</sup> 직접지식의 이러한 분류는 경험의 직접지식과 관찰의 직접지식이 동일언어 내에서 별개의 증거성표지에 의해 문법화되는 언어의 존재를 예측하게 한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실제 증거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부류에 속한다. 한국어 ‘-ㄷ-’는 직접지식의 표지이지만 몽골어 *-jee*는 간접지식의 표지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유사한 주어제약현상을 보이는 것일까? 몽골어 *-jee*가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화자 자신의 행위는 명제내재적으로 함의되는 증거성의 의미가 직접지식이며 따라서 간접지식의 정보표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한국어 ‘-ㄷ-’의 1인칭주어에 대한 주어제약은 몽골어 *-jee*의 주어제약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앞의 5.1절에서 보았듯이 직접지식의 표지들 중에는 몽골어 *-laa*와 같이 주어제약을 받지 않는 표지도 존재하지만,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부류도 존재한다. 한국어 ‘-ㄷ-’는 티벳어 *-tʰæ*와 함께 바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이들은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이지만 문법적 정보영역이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포함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찰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 자신의 행위표현, 즉 1인칭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증거성과 관련해 유사한 주어제약현상을 보여 주더라도 그 원인이나 과정은 전혀 별개의 것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어 ‘-ㄷ-’와 몽골어 *-jee*가 보여 주고 있다.

## 6.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의 증거성표지들을 살펴보았다. 증거성표지에 대한 주어제약은 기본적으로 특정명제의 행위자 (특히 1인칭주어)에게 전제되는 정보의 질과 증거성 표지에 나타나는 정보의 질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거성표지와 관련해 주어제약은 주로 1인칭과 2인칭, 특히 1인칭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인칭주어에 대해서는 주어제약이 관찰되지 않는다. 간접지식과 보고의 표지는 세 언어에서 모두 1인칭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직접지식에 있어서는 몽골어 *-laa*는 주어제약이 없지만 한국어 ‘-ㄷ-, -ㄴ-’와 티벳어 *-tʰæ*는 1인칭주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몽골어와 한국어, 티벳어의 직접지식의 표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우리는 직접지식의 정보의 영역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였다. 즉 화자의 직접경험과 직접관찰을 모두 포함하는 몽골어 *-laa*는 주어제약이 없지만, 화자의 직접관찰만을 나타내는 한국어 ‘-ㄷ-, -ㄴ-’와 티벳어 *-tʰæ*는 1인칭주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다.

몽골어에서 직접지식을 나타내는 *-laa*와 간접지식을 나타내는 *-jee*는 기본적으로 시제표지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티벳어에서 직접지식과 간접지식의 표지는 모두 증거성표지들이다. 적어도 증거성표지의 성격에 관해서 한국어는 몽골어보다는 티벳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세 언어의 증거성관련 형태소들을 비교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주어제약과 관련된 이들 형태소들의 행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들 주어제약과 관련된 예외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었다. 증거성표지와 관련된 주어제약현상은 한국어나 몽골어, 티벳어에만 특별한 언어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언어보편적인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박재연(1999) 국어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225.
- 송재목(1998) 안맺음씨끝 ‘-ㄷ-’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학』 32, 국어학회, 국어학회, 135-169.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Aikhenvald, Alexandra Y. & R. M. W. Dixon (2003) *Studies in Evidentiality*, John Benjamins.
- Barnes, Janet (1984) Evidentials in the Tuyuka verb.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50, 255-271.
- Lowe, Ivan (1972) On the relation of formal to semantic matrices with illustrations from Nambiquara, *Foundations of Language* 8, 360-390.
- Chafe, Wallace & Johanna Nichols (1986)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Mishig, L. (1978) *Orčín üyeiñ Mongol bičigiñ xelnii dadlagin xel züi*. Ulaanbaatar: Mongol Ulsin Ix Surguuli.
- Song, Jae-mog (1997)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Khalkha Mongolian, PhD dissertation, SOAS, University of London.
- Sun, Jackson T-S (1993) Evidentials in Amdo Tibetan, *The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LXIII, Part IV, Taipei, Taiwan, 945-1001.

*jaemog@yahoo.com*